

## 개정판 머리말

여느 해나 그렇듯 한파로 시작된 올해도 가뭄과 이어지는 폭염 등으로 기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지나기도 하지만, 기후와 관련된 문제는 일시적이지 않다. 거의 매 계절마다 기후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마스크를 장식하고 있다. 저자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년 전에 『기후학』 초판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에 『한국의 기후&문화 산책』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당시 독자의 반응 중에 ‘두 책이 똑같다’고 하였던 평이 기억에 남는다. 정확하게 본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책에서 기후의 원리가 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능력상 부득이 한국의 사례를 들어 기후를 설명하려 한 것이 『기후학』 초판이었으니 똑같다고 느낄 것이다. 다만 두 책은 독자를 달리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개정판은 초판과 너무도 같은 내용이다. 지난 5년 동안 책의 내용을 뒤바꿀 정도의 새로운 내용이나 원리가 소개된 것이 없다.

초판을 출판할 때도 완벽한 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단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었다. 이것은 개정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초판을 내놓은 후에 여러 독자들로부터 질문과 질책을 받았다. 개정판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가끔 메일로 보내오는 것이나 출판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질문과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책에 대한 평을 써놓은 글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초판을 출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제4장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

분 저자가 잘못 이해하였거나 확인이 소홀하였던 부분이었다. 또한 제5장의 내용도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쓰인 것이 많았다. 개정판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더 답사하려고 시간을 썼다. 극지방과 저위도지방을 답사할 때나 다른 계절에 같은 지역을 찾았을 때, ‘백문이 불여일견’임을 곧바로 실감하였다. 제5장은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새롭게 출간된 책 등을 통하여 보완하려고 하였다. 지난 해 (주)푸른길의 요청을 받아 『완벽한 빙하시대』를 공동으로 번역 출판한 것도 기후변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개정판에서 초판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 두 개의 장이다.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기상청이 새로 발표한 기후값과 일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였다. 그림과 사진의 일부 자료가 교체되었고, 본문의 내용도 더욱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초판에서 생략하였던 보조 자료를 좀 더 많이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92컷의 사진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그림과 표 등도 42개가 새로 추가되거나 교체되었다. 바뀐 사진 중에는 사진 자체의 문제보다 시대상황이 뒤떨어진 것도 포함되었다. 추가된 사진 중에는 다른 이의 도움으로 구한 것도 많이 포함되었다. 기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새롭게 그림을 표현하려고 하였지만, 부득이 능력의 한계에 부딪친 경우도 있다.

새로운 사진과 자료 못지않게 책은 읽기 쉽게 쓰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

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여러 학교의 학부생에게 원고를 읽히려고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원고 교정에 도움을 준 건국대 지리학과 학부생과 이화여대와 고려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실제로 그들의 노력이 원고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선배, 동료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런 성원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초판에 이어 개정판 작업에서도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뒤통수까지 마다하지 않아준 김선영 선생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개정판까지 출판물을 맡아준 (주)푸른길 김선기 사장과 곱게 편집하여준 이선주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위하여 핀란드에 동행하고 격려해준 가족 모두에게도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012년 8월

저자 씀